



技術士의 回想

Restrospection of the P. E's way

許 垸*
Ginn Huh

韓國 技術士會 創立 30週年을 眞心으로 祝賀하며 技術士會 發足 以來 今日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後進들에게 多少의 參考가 되다면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1. 技術士制度

우리나라는 '63年 11月 技術士法の 公布를 보고 이듬해인 '64年에는 13個 科學技術 部門에서 第1回 技術士를 誕生시켰으며 이어서 '65年 2月 16日에는 그렇게도 苦待하던 韓國 技術士會의 創立을 보게 된 것이다. 當時만 하더라도 運轉士와 技術士로 表記하듯이 技術士의 認識이 아직도 생소한 때였다.

그러는 가운데 技術士法の 創立까지 이끌어난 元老님들 그 때를 回想하니 지금은 他界하셨지만 初代 金海淋 會長, 柳種副 會長 그리고 李鳳寅 技術士 管理委員長, (筆者와의 專門部 同期인 李珉煥君의 父親) 여러 先輩님들의 勞苦가 생각난다. 事務所 하나없이 明洞 2街에 있던 土木學會 事務所에다 技術士 事務所職員用 册床 1個 놓고 일하던 셋방살이 時節이었다. 筆者는 當時 國營大韓 重石鑛業(株) 技術部長으로 在職 時 事務所이 같은 明洞1街에 있었으며 土木會館과는 不過 50m 밖

에 떨어져 있지 않음으로 技術士法 立法 過程에서 外局 資料 수집 하는데 一役을 맡아 元老 先輩님들 심부름한 記憶이 지금도 새롭다. '64年 63名의 第1回 技術士 一行은 때마침 政府의 經濟開發 五個年 計劃이 推進 中이라 名實共히 技術立國을 強調하던 때인지라 當時 經濟 企劃院 張基榮 副總理의 案內로 靑瓦臺로 招請되었다. 茶菓會가 무르익어가면서 이야기의 主人公은 主로 朴 大統領이고 우리 一行은 듣고만 있는 立場이었다. 그러던 朴 大統領의 첫 提案은 技術士의 名稱을 좀 덤 格上 시켜 樂聖처럼 技聖이나 아니면 技監으로 改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李 技術士 管理委員長 答辯. 저희들 技術士들은 앞으로 品格있는 좋은 名稱을 찾아보도록 努力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라 보다 10余年 앞선 日本에서 이미 技術士라고 呼稱하며 부르고 있기 때문에 國際 間의 關係도 考慮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그렇지 않아도 모처럼 技術士 여러분이 오신다고 하기에 며칠전 부터 斯界 學者 몇분에게 물어 보기를 技術士와 博士의 區分을 말해보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알것도 같으나 모르겠으니 나같은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說明해 줄 수 없소.

李 委員長 答辯. 筆者를 指摘하면서 자네가 外

* 火藥類 管理技術士, 地下資源開發技術士, 美國土木技術士許

國의 예를 들어가면서 잘 말씀드리게... 筆者는 한찬 동안 당황하였다. 이윽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쉬운말로 說明 올리겠습니다.

어느 교수가 벼룩의 고환에서 萬病通治의 成分을 새로 創造 卽 發見하였다고 假定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微量이기 때문에 사람이 양산한다 하더라도 商品으로서 生産은 不可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學術 論文이요 卽 博士 論文입니다. 經濟적으로는 아무런 價値가 없습니다. 이에 反하여 技術士의 報文은 반드시 實用的으로 適用되어야 하며 商品으로서 例컨대 開發 途上國의 建設 設計 1枚가 \$100이면 中道國에서는 \$1,000이요, 歐美와 같은 先進國에서는 \$10,000에 去來 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할 것은 技術士는 모름지기 最高 水準의 技術者로서 名譽와 權威를 잇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說明이 끝나자 이제서야 알것같은...

지난날을 回想컨대 技術士會 金海淋 會長(제1, 2代)때는 元老님들의 일 심부름하느라 草創期에는 그런대로 보내고 筆者 分野 柳鍾 先輩님이 副

會長, 會長 就任으로 筆者는 自動的으로 技術士會 分野別 理事로 選出되었으며 柳鍾 會長(3, 4代) 李昌九 會長(第5代) 林鳳鍵 會長(第6代) 때는 非常勤 理事로 李獻 會長(第7, 8代)에 들어서면서 副會長에 就任 이어 崔鍾浣 會長(第 9, 10代) 金慶植 會長(第 11, 12代)에 이르기까지 12年間 副會長으로서 技術士會 運營에 있어서 會長 補佐에 盡力을 다하였다. 現在는 監査로서 奉仕中이다.

이제 國際化 開放 時代를 맞이하여 눈을 밖으로 돌려야할 90年을 들면서 政府는 엔지니어링 進興法과 技術士法('92.11.25)를 改定 公布하여 金일에 이르고 있다. 새 技術士法에 의한 公益 法人 韓國技術士會도 새로운 看板으로 바꾸게 되었다.

昨今 엔지니어링 進興法이 發效와 더불어 從來의 技術士業의 獨占 業務가 풀리면서 자유화 되는 바람에 極히 一部 技術士들과 利害 關係가 相反되자 이에 不滿을 품고 官街에까지 이르렀다. 한걸음 더 나아가 辯護士나 醫師에 比해 우리 技術士가 무엇이 못하느냐... 等の 抗辯이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世系 어느나라에도 技術士

1995年1月9日 月曜日

1995年1月9日 月曜日

1995年1月9日 月曜日



許 煥 世

중소기업대표
許煥世 진기득

68세에 기술사 합격

30년전 최연소주인공... "토목분야 또 도전"

이제 대망입니다!
許煥世(68)도 30년전 최연소주인공이 되었고, 이번엔 토목분야에 도전합니다.

이제 대망입니다!
許煥世(68)도 30년전 최연소주인공이 되었고, 이번엔 토목분야에 도전합니다.

이제 대망입니다!
許煥世(68)도 30년전 최연소주인공이 되었고, 이번엔 토목분야에 도전합니다.

東亞日報

資格者만이 技術用役業을 하도록 法에 依해 獨占 業務化 되어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辯護士·醫師와 같이 排他 獨占權을 가지고 있는 것은 人類 太古時代 부터 내려오는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한 慣習이요, 現代에 와서 法으로 定해졌을 뿐이다. 따라서 技術士는 國家가 認定하는 最高의 技術을 몸에 지닌 技術者의 實力과 權威를 象徵하는 稱號를 恒常 간직하고 國內外의인 自由로운 競爭者로서 앞장설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여기서 先進諸國의 技術士制度를 살펴봄으로서 果然 技術士란 무엇인가에 對한 물음에 對해서 많은 貴重한 資料가 될 것으로 믿어 紹介코져 한다.

英國(British)

英國의 技術士 制度는 Chartered Engineer(國王勅許狀)으로 1759年 발족했던 것이다. 이 資格證은 政府가 아닌 法律에 의해 承認된 王室의 樞密院(Privy council)으로 格上 되어있다. 따라서 chartered Engineer는 CEI(Council of Engineering Institutions) 技術團體聯合會 傘下의 ICE(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에 會員加入이 義務化 되어있다. chartered Engineer는 大學 卒業后 3年 以上の 經歷으로 專門 試驗(Professional Examination)은 實務 報告書, 論文 및 面接 節次를 걸쳐 合格하게 되면 ICE의 會員(Corporate member)가 된다. 여기서 다시 設計, 施工의 5年 以上の 經歷을 쌓은 后 審査에 依해서 Fellow member가 된다.

技術 用役業에 從事하는 Fellow member는 ACE(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에 加入하여 則 FIDIC會員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Consulting業은 Chartered Engineer 資格者만의 獨占 業務는 아니다. 그러나 政府의 重要한 Project를 委任 받는데 利點이 많다.

美國

英國의 影響을 받은 美國 技術士制度는 1907年 Wyoming州에서 試作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으며 2次大戰 中 Consulting Business가 붐을 타고 技術士制度가 뿌리를 내리기 始作한 것은 1943年이다. 따라서 州마다 各 異한 試驗 資格制度를 가지고 있어 不偏한 點이 많았으나 이제는 하나로 통일되어 技術士會는 NSPE(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傘下의 各州 技術士會가 있으며 技術 免許는 ACEC(American Consulting Engineers Council)傘下의 各州 技術用役協會가 있다. 即 이는 加國, 日本 및 우리나라와 類似한 것이다. 美國 技術士는 大體的으로 州技術士會가 州政府로 부터 委託된 試驗, 登錄 業務를 代行하고 있다.

技術士 資格試驗問題는 NCEE(National Council of Engineeringg examiners)傘下의 各州 SBEE(State Board of Engineering Examiners)에 依해서 管掌하고 있다.

모든 節次는 州 技術士會에서 執行하나 시험 위원은 州知事가 任命하도록 되어 있다. 資格 試驗 節次는 大學 卒業 후 응시할수 있는 技術士補 EIT(Engineering In Training) 이것은 數學 物理 等 基礎科目 全般에 關한 16時間 程度의 筆記 試驗을 보게 되어있다. EIT合格 후 技術士 밑에서 Consulting實務 經歷 4年 후 技術士 本試驗(Professional Engineers)이 있는데 專攻分野의 16시간 정도의 筆記와 面接 試驗이 있다. 筆記試驗問題는 NCEE에서 발행한 問題 解答集을 참고로 하게 되며 주관식 선다형이다. 筆者가 Delaware 州 技術士 資格 試驗을 응시할때는 때 마침 Wilmington市에 世界的인 화학공장인 Dupont 會社에 友人의 소개가 있었는데 外國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技術士會 幹部들도 일

떨떨한 편이었다. 筆者가 提議하기를 願書接受
如否를 定하기 前에 먼저 面接으로 適否審査를
했다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이를 쾌히 받아들여
한국 技術士 資格 덕택으로 技術士補(EIT) 시험
은 免除받고 PE筆記 시험과 口頭 試驗만 보고
榮光의 합격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특기할것은 技術士가 가지고 있는 명예
와 權威 그리고 理論보다는 實務를 중요시하는
뜻에따라 LEP(Long Established-practice cla-
us) 制度가 있는데 Consulting 實務 經歷 20년
以上 年令으로 보아 45세 이상인 應試者 卽 대
학을 卒業하지 않더라도 P.E를 應試를 할수가
있다.

그 外 元老 制度(Eminence claus)가 있는데
이를 英國의 Honorary Fellows에 該當하는 것
으로 45세 이상으로서 大卒 后 실무 經歷 20년
以上의 탁월한 經綸과 사회에 貢獻한 자로서 審
査結果 認定된 者는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8시간
이상의 口頭 試驗에서 筆記에 버금가는 技術 問
題를 포함한 시험을 畢하게 되어있다.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며 規定이 있을 뿐이다. 마치 英國에
서 수백년 부터 내려오는 死刑法이 王에게 叛逆
한 者는 도끼자루로 목을 자르게 되어있으나 지
금은 象徵에 不過한 英國王을 叛逆한 者가 없으
니 死刑이 없을 뿐이다. 實務 經歷 4年이라 하면
Consulting 卽 設計 調査 및 監理등을 뜻하는 것
이요, 施工과는 區分 되는 것이다. 하물며 土木
分野에서 말하자면 要式 建設會社 經歷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經歷 說明書는 技
術士補를 合格하면 州技術士會에 加入하게 되니
自律的으로 技術社會에서 證明을 해주게 되어있
다. 筆者는 70年代 부터 駐韓美軍 工兵團(COE,
FED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의
技術教官(講師)로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關係로

우리나라 젊은이에게도 美國 技術士 合格을 응시
토록 하기 위해서 年 2回 11月과 4月 筆記 試驗
만으로 口頭試驗없이 國內에서 美國 技術士 資格
을 탈수있는 機會를 만들었다. 應試原書 및 節次
等に 對해서는 韓國 技術士會 事務局에 問議하시
기 바랍니다. 加國은 美國과 類似한 것으로 詳細
하게로 한다.

日 本

日本の 技術士制度는 美國 韓國과 類似하며 特
히 資格試驗制度는 10年前까지 3個國이 同一했
으나 近來에 와서 美國이 改正하는 바람에 日本
도 똑같이 改正했으나 우리나라만 그대로 있는
꼴이 되었다.

'57年 技術士法이 科學技術處에서 制定되었으
며 이어서 같은 해 日本技術士會 JCEA(Japan
Consulting Engineers Association)가 發足하고
'74년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進興協會와 같은
日本 Consulting Engineers協會(AJCE)가 發足
하면서 FIDIC會員이 된것이다.

技術士 資格 試驗은 年 1회로 하되 東京을 비
롯하여 地方 8個處에서 技術士會 支部가 執行하
나 試驗委員은 科學技術處 大臣의 任命으로 되어
있다. 技術士會의 主務處는 科學技術處이나 建設
分野에 對해서는 “建設 Consultant 臚錄 規定에
따라 建設省 傘下에 建設 Consultant 協會
(JCCA, Japan Construction consultant Associ-
ation)을 두고 技術用役業을 管掌하고 있다. 우
리나라와 같이 技術用役業을 營爲함에 있어 原則
的으로 技術士가 아니더라도 營爲할 수 있으나
上記 JCCA에 加入하는데는 技術士 1名 以上을
保有 해야된다든가 政府가 Project에 高度의 技
術이 要하는 경우 技術士 활용을 勸獎하는 것이
라 하겠다. 어디까지나 先能力 后資格의 思考方

式이라 하겠다. 일본은 官僚主義답게 公務員에 專門職의 활용으로서 우수한 人才를 確保하여 建設 分野에서 보면 發注設計는 民間 Consultant 施工은 民間 建設 會社 JV 工事に 比해서, 監督 (監理를 兼함)은 반드시 發注處인 官에서 主管 하고 있다. 따라서 工事監理를 별도로 民間에다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따라서 工事現場을 가면 監督官室과 施工 現場 事務所가 따로 獨立되어 있으며 兩者의 技術者 數는 거의 同數이나 技術 蓄積度는 監督官이 차지하며 施工 變更 時 增減에 對한 判定에 대해서 不滿이 技術士 總會는 반드시 地方 巡廻하면서 開催하고 支部 大會는 그 나름대로 技術 發表會 등 活潑한 활동을 하고 있다. 韓日 技術士會는 隔年 別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開催하고 있는데 今年은 第24回 大會를 日本 北海道에서 開催한 바 있는데 筆者로 參席하게 되어 모처럼의 北海道의 가을 風景을 만끽할 수가 있었다.

獨 逸

大學 卒業이 오년제가 되어 學位를 B.E(Bachelor of Engineering)가 아닌 碩士에 該當하는 Diploma Engineer라고 呼稱한다. 따라서 Diploma Engineer가 技術用役業界에 進出 希望하는 者는 5年間の 實務經歷을 거친 다음 所定의 試驗을 보고 VBI(Verband Beratender Ingenieure)에 加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技術士와 같은 Consulting Engineer 役割을 할 수 있는 것이다. 技術 用役業은 VBI會員만의 獨占 業務만은 아니다. 最近一部 州에서 Chamber of Consulting engineer를 設立州 法에 依한 技術士法으로 CE 資格試驗을 實施하고 있다.

其他 歐洲諸國

歐洲國 中에서 美國과 類似 技術士制度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瑞典 奧地利이며 대학 졸업 후 Consulting Engineer가 되고자 하는자는 Consulting Engineer Firm에서 3年間の 研修를 마치고 SKIF(Svenska Konsulterande Ingenjores Forening)即 技術用役 協會 會員이 됨으로서 實務에 들어간다. 佛蘭西, Netherlands, Denmark, Norway, Finland, Austria, Belgium, Italy, New Zealand, Switzerland等은 우리와 같은 技術士制度는 아직 없으나 FIDIC會員으로서 나라마다 技術 用役 協會는 가지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歐洲 總會와 더불어 EC諸國 間에 共用할수 있는 技術 用役 制度를 準備 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技術士活用

政府의 經濟 開發 5個年 計劃의 第2次 年度에 접어들면서 外資導入事業(技術)이 本格化되면서 민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外資導入의 妥當性 檢討와 工團 造成 事業은 唐詩 經濟 企劃院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워 韓國產業銀行 出資의 韓國 綜合 技術 開發 公社(社長 朴太源)을 '66년에 設立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國際 規模의 綜合 技術 用役(Consulting form)을 만든 것이다.

勿論 中小 規模의 用役 會社가 없었던것은 아니다. 어쨌든 公開 募集에 依한 技術陳으로 第1回 技術士 資格者가 主心이 되어 建築界 泰斗이신 金壽根을 비롯하여 盧丞鈺 專務, 金炯洙, 李東鎮 常務, 崔錫煥, 金勝坤, 金光雄, 許 填 理事等 이나라 엔지니어링(Engineering) 界의 開拓 者로서 地盤構築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當時 國務總理(金鍾泌 現 民自黨 代表)의 訓

領으로 政府 各 部處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 業務는 당 公社에서 隨意 계약으로 處理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公社의 主 收入源 役割을 했던 筆者所管의 外資導入의 기술 및 資本財 妥當性 검토 사무는 經濟 企劃院의 技術部 役割을 했던 것이다. 지금의 浦鐵 蔚山 團地 産室도 여기에 속했으나 지금 생각해도 기적같은 일을 해낸 것이다.

'67년에 이르러 科學技術處가 발족하면서 1973년 2월 5일(法律 2474)에 技術 用役 육성 법이 制定 公布되어 技術士의 登龍門이 檀君 祖上 以來 처음으로 이땅에 法的 Consultant Business가 始作된 것이다. 그間 政府로서도 強力히 推進 해오고 있는 經濟 開發 五個年 計劃 第3次 年度에 접어들면서 外資 資本財 技資에 依한 生産品 出荷와 더불어 輸出이 漸次 늘어나고 越南 特需에서 中東 建設 붐을 맞이하면서 70年代 年間 10%의 高度 成長率을 維持하느라 技術士의 數的 不足을 實感하게 된 것이다.

科技處에서는 大統領 令으로 畸形兒 아닌 認定 技術士-高級 技術者制를 新說 主務長官이 認定 하면 技術士와 同格으로 取扱되었으며 技術士會의 끈질긴 反對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자그만치 10年間을 認定했던 것이다. 또하나의 事件은 中東 建設 붐이 한참인 70年代 後半期 國家 元首가 作業 督勵 次 現地를 訪問하여 수고하는 技術者들의 사기를 돋구는 뜻에서 膳物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81년에 建設部가 主管으로 技術士 試驗委員이 現地主張 現地에서 受驗을 施行하며 應試 出席者 78名 中 78名 合格의 結果를 가져왔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3. 交際交流

'71年 10月 25日 日本技術士會 常務理事와 技

術處 技術士 係長一行 16名の 처음 訪韓으로 日本 技術士會의 合意 覺書(鄭炳珮 常任理事, 高田 一郎 常務理事)를 交換하며 每年 相互 親善 訪問을 持續한것이 어느덧 金년으로 24회가 되었다. 그 간 技術 交流와 우호 增進은 勿論 共同 세미나를 통한 相互 理解로 紐帶를 강화하고 있다.

'80年代 접어들면서 技術 團體의 해외 여행은 相對 團體에서 正式 招請狀이 오면 旅券과 VISA가 發給이 되는데 門戶 開放이 되지않는 때이라 相對國의 技術士會 住所알기에도 어려운 때이라 서울 駐在 大使館에 問議하면 商品사겠다는 상담이나 하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協調해 주나 科學 駐在員이 없으니 알 도리가 없었다. 그 보다는도 어려운 것은 어렵게 住所를 찾아내서 親善 訪問 次 貴會를 찾아가겠으니 定式 招請狀 公證書 添附를 부탁하면 그냥 오면 되지 무엇때문에 招請狀을 要求하느냐의 反問이다. 하는수 없이 美國의 大學院 同期 親舊에게 長距離 電話를 걸어 좀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면 나는 거기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고 난색을 표한다. 이것이 白人들의 생각이요 우리 내 하고 다른 點이라 하겠다. 이렇게 물고트기가 힘이 들었다. 그러나 먼저 筆者가 所屬되어 있는 델라웨어주(Delaware) 技術士會를 찾아가서 詳細히 說明을 하고 理解를 시키니 이제는 그네들이 自進해서 다음 해 가기로 예정 되어있는 技術士會에다 부탁하여 다음부터는 每事가 쉽게 풀려졌다. 이것이 싫든 좋든 結果的으로 海外 技術士 招請 訪問은 筆者가 引率을 하게된 이유의 하나이다.

海外 技術士會 招請訪問 派遣 日誌

1. 東北亞 技術士會

- 1) 期 間 : 1981. 11. 15~11.27
- 2) 訪問國 : 臺灣(타이페이), 泰國(방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香港(香港)
- 3) 視察國 : 許墳(團長), 韓鍾彥, 朴基浩, 吳治湘, 李正雨, 裴正吉, 安吉元, 金柱恒, 圭錫, 松源吾, 曹圭永

2. 歐洲7個國 技術士會

- 1) 期 間 : 1985. 3. 20~4. 6
- 2) 訪問國 : 英國,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西獨,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 3) 視察國 : 許墳(團長), 金圭泰, 宋在成, 曹東錫, 金聖培

3. 北中美5個國 技術士會

- 1) 期 間 : 1986. 7. 7~7. 25
- 2) 訪問國 : 美國(뉴저지주, 델라웨어주, 워싱턴주, 코네티컷주, 뉴욕주)
- 3) 視察國 : 許墳(團長), 權產鎬, 曹圭永, 金聖培, 朴武英, 韓鍾彥, 申鍾淳

4. 北南美技術士會 訪問

- 1) 期 間 : 1987. 7. 15~8. 2
- 2) 訪問國 : 美國,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 3) 視察國 : 許墳(團長), 金在旻, 申鍾炫, 金勝坤, 申元一, 金昌瑞, 鄭鎮鎬, 韓鍾彥, 曹東錫

5. 中國科學技術協會訪問

- 1) 期 間 : 1988. 11. 17~12. 2
- 2) 訪問國 : 中國(北京, 天津, 西安, 上海)
- 3) 視察國 : 許墳(團長), 李正雨, 全相伯, 申元一, 權產鎬, 韓鍾彥, 金寅斌, 安吉元, 朴泰厚, 高基聖

6. 東歐圈4個國科學技術士協會 訪問

- 1) 期 間 : 1989. 8. 12~8. 29
- 2) 訪問國 : 蘇聯(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폴란드(바르샤바), 헝가리(부다페스트), 유고슬라비아(자그레브)
- 3) 視察國 : 金圭泰(團長), 許墳(交替團長), 張文三, 裴基龍, 俺采永, 吳章煥, 鄭鎮鎬, 崔錫煥, 申東秀, 韓鍾彥, 金昌瑞, 權產鎬, 羅殷澤, 禹丞煥, 金德默, 鄭倉旭, 閔鳳基

4. 맺는 말

最近 世界는 東西 冷戰의 終熄과 더불어 技術을 바탕으로 하는 한 經濟 戰爭과 資本 및 技術 人力이 同時 稼動하는 國際化(Globalization)의 技術 環境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울러 各國의 技術開發 政策도 擴散 指向的(Diffusion Oriented) 戰略으로 漸次 變하고 있는 이때 青年期를 맞이한 우리 技術士會도 外的으로는

1. 엔지니어링 産業 開放化에 對한 對應 戰略과 國際 競爭力 強化 方案

2. 外國 技術士會와의 技術 交流 強化 外的으로는

1. 技術士會 地方 支部의 擴大 및 各 委員會 中心의 運營 體制 改善

2. 技術士 資格 試驗 制度의 改善 等 (技術士補 新設, 先進國型 技術 分野 統合과 出題 方式 改善)

進一步 發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